

공들인 평창 ‘올림픽 유치’ 확정 순간 ‘축하’ 타종

조계종 총무원 이어 중앙신도회 등 ‘환영’ 논평

두 번의 실패를 딛고 2018년 제23회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강원도 평창이 확정됐다. 개최지 선정은 지난 6일 밤 IOC 위원들의 전자비밀투표 방식으로 시작돼 자정이 지난 무렵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이 개최지를 공식 발표했다. 평창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 1차 투표에서 유효표 95표 가운데 무려 66.3%에 해당하는 63표를 얻었다. 2위인 독일 뮌헨(25표)에 38표나 앞섰다. 평창의 63표는 역대 IOC 올림픽 개최지 투표 사상 1차 투표 최다 득표 기록이다.

개최지로 확정되는 순간 서울 조계사는 유치를 축하하는 타종을 울렸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지난 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환영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논평에서 “은 국민이 일심으로 발원했던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소식에 우리 종단의 사부대중은 기쁜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동계올림픽을 통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감은 물론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전 세계인의 가슴에 환희와 감동을 안겨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축하했다.

조계종은 이어 “국민의 뜻을 모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성공했듯이 종단도 사부대중의 뜻을 모아 새로운 한국불교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면서 “불교계가 한 목소리로 동



계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염원하고 유치 성사를 기뻐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자성과 쇄신 결사 정신으로 국민과 함께가는 불교, 세계인과 함께가는 한국불교를 실현하는 일과 같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도 같은날 환영 논평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은 남북이 하나됨은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만반의 준

비로 성공적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해 세계인의 가슴에 감동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다함께 매진하자”고 강조했다.

민주당 불자모임 연등회도 환영 논평을 통해 “연등회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축하했다. 7대 종단 지도자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도 지난 8일 유치 결정에 대한 종교계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16일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해충스님)은 태릉선수촌 오룡관에서 16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대법회’를 열고 부처님의 가피로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되길 기원한 바 있다.

▶관련기사 3편
하정은 박인택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왼쪽)이 지난 7일 일본 요코하마에 위치한 조동종 대본산 총지사(總持寺)에서 일본 조동종 관장 예가와 신잔스님에게 선물을 건네고 있다.

대지진 희생자 천도재 봉행단 ‘환영’

한·일 불교교류 새로운 장을 열다

조계종-조동종 ‘세계평화 공동목적’ 실현
종단차원 교류협력 나선 것 이번이 처음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조계종 대표단은 조동종 산하 자원봉사단체인 ‘산티국제 자원봉사협회(SVA)’에 지진 발생 후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모금한 일본 지진피해 복구지원 기금 2000만엔(한화 약 2억60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같은 날 지진 최대피해지역인 센다이로 장소를 옮긴 대표단은 조동종이 마련한 저녁 만찬에 참석해 더욱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표단은 이에 앞서 지난 6일 가마쿠라 광명사에서 거행된 일본 정토종 창종 80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한편 동일본 지진피해 위문과 희생자 천도재를 위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일본을 방문한 조계종 대표단은 8일 센다이 임향원에서 조동종과 합동 천도재를 봉행한데 이어, 같은 지역에 위치한 조총련계 민족학교인 ‘동북조선초중급학교’에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구호 성금과 선물을 전달했다. 더불어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해 현지인들을 위로하고 조속한 복구를 기원한다. (7월7일 현재, 차호상보) 조계종 대표단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위시해 제11교구 본사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 총무원 특보단장 정념스님, 사회부장 혜경스님, 중앙총회 사무처장 성효스님, 포교원 포교부장 계성스님,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원철스님, 종단협 불교인권위원장 진관스님과 실무진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일본 요코하마=김하영 기자

현충원 찬송가 연주 재발없다

‘종교편향’ 음악 삭제…보훈처, 본지에 회신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는 국립대전현충원과 이천호국원 등에서 최근 추모행사 도중 찬송가로 활용하고 있는 곡을 연주해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국가보훈처가 지난 5일 “문제곡을 삭제하고 음악을 재편집해 보훈처가 관리하는 대전현충원과 전국 호국원에 배포하기로 했다”고 공식적인 답변을 해왔다. 문제가 발생한 국립이천호국원도 같은 날 본지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신을 공문으로 보내왔다.

국립이천호국원은 공문을 통해 “‘Free as a bird’는 특정종교편향 논란이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국립묘지 내 안장식 배경음악에서 삭제할 것임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Free as a bird’(자유의 새)라는 곡 가운데 일부본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Nearer my God)’이라는 곡으로 현재 찬송가로 활용되고 있다.

이천호국원은 공문에서 “문화 및 분향 시 엄숙하고 경건한 안장의식을 위해 일반적으로 장례음악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리그의 ‘오제의 죽음’과 스페인 민요인 ‘Free as a bird’를 안장 의식에 맞도록 편곡해 각각 ‘Free as a bird, Funeral, R·B·H’라는 곡명을 붙여 사용하고 있다”며 “특정종교 편향의도 등의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천호국원은 “안장식은 국가에 대한 경례, 영현에 대한 묵념, 조사, 헌화 및 분향, 영현봉송, 묘역 안장 등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곡은 헌화를 할 때마다 연주됐다.

안주생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사무관은 “공문을 접수한 이후 회의를 통해 문제 곡을 삭제하기로 결정하고 음악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며 “음원자재를 편집해 CD

를 다시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발생한 최초 기관이 국립이천호국원이어서 공문처리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규용 국립이천호국원 실무관은 “새로 제작된 CD를 받아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는 지난 6월29일 ‘국립이천호국원에서 매일 오후 2시 합동안장식을 진행할 때마다 찬송가 음악을 사용한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에 들어갔으며,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는 국립대전현충원을 비롯한 이천호국원 등에서 안장식 때마다 ‘Free as a bird’라는 곡을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본 사안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같은 곡이 선정된 명확한 까닭과 논란이 되고 있는 곡의 앞으로의 사용 여부 등의 내용을 담아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알림

불교신문
m.ibulgyo.com

스마트폰에서 만나세요



불교신문이 모바일 웹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등 모든 스마트폰 인터넷 주소창에 ‘m.ibulgyo.com’을 입력하면 ‘모바일 불교신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불교신문은 스마트폰 환경에 맞도록 구성해 편리하며, 최신기사와 인기기사, 사진기사 등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교신문 QR 코드’를 찍어 손쉽게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불교신문사

108 산사기도회-108번째 결혼이주민 ‘결연’ 4면

인터뷰/ 김의정 ‘서울시문화재찾기 시민위원장’ 18면

사찰음식의 대가 선재 스님이 11년 만에 출간한 새 책 !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선재 스님 지음 • 256면 • 유통가 17,000원

KBS 「생로병사의 비밀」 7월 9일 방영

지난 30여 년 동안 사찰음식을 연구하고 강의해 온 사찰음식의 대가 선재 스님이 사찰 음식에 갖든 정신, 경전 말씀을 바탕으로 한 음식 철학, 사찰음식을 통해 세상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버무려 놓았다. 수많은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을 음식으로 치유시킨 사례,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에서 문제 청소년들을 음식으로 변화시킨 체험 등이 감동적이다. 한편 중간중간 사찰음식의 효능과 함께 레시피와 음식 사진을 수록, 약보다 좋은 사찰음식의 진면목을 만나는 재미도 쏠쏠하다.

www.bulkyang.co.kr | @bulkyang_c | www.facebook.com / bulkyang

팔만사천 경전 중에 뽑아낸 가장 아름다운 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구절

증병에 걸리면 편안하지 않은 것처럼 산란한 마음도 그러하여 여러 일을 건디지 못한다. 마음이 산란하여 안정되지 않으면 듣고 사유하고 관찰하라. 그곳에서 물이 새면물은 채워지지 않는다.

『보리행경』 중

불교의 경전 중에서도 마음, 말, 자비, 나눔, 배움, 인연 등 종교나 시대를 초월해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애독하는 구절만을 가려 엮었습니다.

역문 _ 이진영 · 감수. 무비, 원철, 정목 296면 | 12,000원